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언

주월 한국 대사관 건설관

金 東 暉

目 次

1. 머리말
2. 월남에서 얻은 경험
3.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태국의 기술 Potential
4. 기술 및 기업 진출 전망과 제언

1. 머리말

본국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조국 근대화를 위한 건설 사업의 추진과 1970년도 수출 목표의 경이적인 달성 및 1971년도의 수출 목표 13억불의 달성을 위해 주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포함과 동시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월남에 있는 저희 회원을 비롯한 많은 기술자들은 최근에 이러한 조국 발전에 힘입어 더욱 더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미군의 감축과 아울러 미군을 지원하고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의 일도 끝이 난곳이 많아 속속 귀국하고 있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귀국 후의 국내 산업 전선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믿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 이들이 월남에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배웠고 또 무슨일을 할수 있는가를 일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앞날 및 동남아 지역에 기술(Technical

技術士 (建設部門)

know how를 말하며 노동 정책에 관련된 인력과는 구별되어야 함) 진출의 개척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2. 월남에서 얻은 경험

한국 사람은 월남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온 한국 사람은 기업체나 또는 개인을 막론하고 그들의 실력을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과시할 기회를 가졌으며 또 인정받게 되어 앞날의 발전의 기틀을 구축해 놓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동태를 개인별과 기업체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 추이 (노동청 자료)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미국회사	100	7,800	9,000	11,300	8,700	4,000	40,900
한국회사	100	2,200	4,000	4,300	4,000	2,700	17,200
계	100	10,000	13,000	15,600	12,700	6,700	58,100

기업체 추이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비 고
미국 회사	3	6	9	9	6	6	개인회사 제외
한국 회사	5	20	76	76	76	65	송금 실적기준

한국 기업체와 기술자의 1968년말 현재의 취업 상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 문	업 체 수	인 원 수
건설	12	3,900
항만하역 및 수송	4	7,200
일반 군납 용역	60	4,500
계	76	15,600

또 이러한 부분의 개인별 활동 내용을 보면 대략 다음 예와 같습니다.

가. 회사 운영

사장-대의 활동사원(재 월남정부기관 및 미군기관)-기술자 또는 판매 사원

나. 기계 기술자

공장(채석장, 수리창) 설치-시계 수리공

다. 전기 기술자

1,000Kw 발전기 설치 및 수리 또는 50KW 10대 병렬 설치운영 또는 고압선 설치공사-Rader의 송수신기 설치-Radio 및 TV 수리 또는 컴퓨터 계획 작성, 운영

라. 토목, 건축 기술자

조사 측량, 토질검사설계-시공 감독-공사집행(중기운전, 용접, 목수, 십장 등)

마. 중기운전

연안 선박, 바야지, 탁그보드 운전, 준선선, 크레인, 불도저, 발전기, 대형 트럭

바. 기타

미생물 취급, 의사, 간호원, 비행사, 농업 기술자, PX판매원, 수출입 대리점, 초상화, 재봉사, 사진현상, 빵제조 등.

이와 같이 각계 각층의 인사 및 기술자가 월남에서 6년간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월남도 현재로서는 사회의 안정과 기술의 향상으로 특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 사람의 도움이 필요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한국사람의 취업추이도 점차 전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 현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별	인원	현황
의료단	90	의사, 간호원, 방역반의 각 지방

		내 배치, 월남인 환자 치료(년간 수술 진수 5,000여 건에 달함) 및 성립 병원 기술지원
농업 기술단	30	농지 개량 시설조사 설계, 품종 개량, 농업시험 기술지원, 수산, 병동, 어선건조지도
건설	1,600	설계용역 회사근무-200명 (군사측량, 토건시험, 자료시험, 설계 감독, 한국건설회사 시공요원-150명 공사 집행 및 발전기 중기운전 및 냉동기 수리 등 1,230명 정도)
장비창	200	각종 장비 제생 및 메인테넌스, 부속품 제작, 품질 시험관리(3교대 주야 작업함)
발전함	300	발전함 10대 운영
하역	2,500	항만하역, 육상수송, 창고관리, 타이푸 라인 수송 유지관리
기타	1,980	개인영업, PX 판매업, 기타
계	6,700	

이상에서 건설부문의 시공요원, 하역 및 기타 인원의 대부분은 월남화 정책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불원 월남인 기술자로 대체될 것이 예상됩니다. 직장을 잃게되는 이들 기술자 들은 대부분 귀국하거나 이곳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대기하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월남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고 우리 기술자의 해외 진출을 도모기 위해 기업과 기술의 진출이 인력진출에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믿고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3.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태국의 기술 Potential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부진의 큰 원인의 하나는 기술빈곤에 있음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지역 국가들도 인제까지나 후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세계의 조류의 부닥쳤습니

다. 즉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의 Regionalism은 이 지역 인민의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ECAFE의 창설을 비롯 Colombo 계획, Mekong 위원회 등 지역 사회개발 기구만도 23개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Mekong 위원회는 Mekong 강 하류 연안 국가(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를 주축으로 25개국의 후원을 받는, 즉 당사 관계국의 기술자는 물론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여러 나라의 기술자에 의해 Mekong강 종합 개발(상기 4대국의 대부분의 영토)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7~1958사이에 위원회에서 얻은 각국으로부터의 원조의 총액은 1억5천만불에 달하며 그중 48백만불은 조사비로 나머지는 공사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여진 조사는 수문, 인문, 자원 및 하천조사 등 도합 23건으로 17백만불이 투입되었고 미국의 자금 10백만불에 의한 공사비 10억불 규모의 파뽀렐 타당성 조사가 1971년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쟁으로 중단)

한편 진행중(전쟁으로 중단)에 있는 공사로는 33백만불의 푸랙크나트 다목적 댐, 30백만불(일본시공)의 남경댐 등 대규모의 공사와 7~8개의 소규모의 수리관개사업(한국정부에 의한 30만불의 대월 Mekong Delta 관개사업 기술원조는 포함되지 않음) 등이 있으며, 또 1971~1972에 월남정부에 의해 발주될 미투안코(25백만불)의 공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Mekong 위원회는 이 지역의 큰 기술 Potential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급속적인 기술 개발의 Tempo를 가한것은 월남전입니다. 미국은 월남전 수행을 위해 월남 내에 20억불의 시설과 태국내에 5억불의 시설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5만명의 월남인 기술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또 외국인 2,000명(대부분 미국인)의 민간 기술자가 미국원조 기관에서 월남을 도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월남전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확대되어 이지역에 또한 미국의 원조 자금 및 기술자가 투입되고 있음은 극히 팔복 할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의 자국민의 기술 상황은 어떠한가?

확실한 숫자는 알수 없으나 월남 내에는 인구 만명에 1명의 기술자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100명대 1명, 한국 1,000명대 1명)참고로 국토의 넓이, 인구, 공과, 농과대학 졸업생수 및 인구밀도를 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1967년 기준이며 대략의 수치임)

국명	면적 (km ²)	인구	비학업생	인구도
캄보디아	163,793	5,695,713	2,000	34.8
라오스	220,500	2,462,714	1,000	11.2
월남	76,786	6,643,731	6,000	86.5
태국	189,029	11,260,774	5,000	59.6
계	650,113	26,062,932	14,000	40.0

4. 기술 및 기업진출전망 및 제언

러외에 기술이 진출 하는때는 기업이 따라야 하며 또 기업이 진출하는 때는 기술이 뒤따라야 하는 마치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Mechanism을 일본 사람들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월남에서 전쟁이 끝나던 월남 경제전선에 참여하고자 과거 1년 나머지 전서부터 자기때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기술적으로 세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얼마전 그 조사단의 보고서(주로 일본과 합작할수 있는 분야)가 나왔는데 이것은 월남의 전후 건설을 다룬 미국의 Lilienthal 보고서의 필적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한 사업의 참여와 Mekong위원회의 사업의 참여 등 이 지역 국가의 개발의 주도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월남에서 과거 6년간 미국에 다음가는 군사와 경제면에서의 공헌을 해왔으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마침내 우리는 지금 태국에서는 도로공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산림벌채 및 건설공사, 부르네이에서 정유공장과, 팜도에서 주택공사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국내의 공업의 발전의 힘을 빌어 이지역에서의 건설공사용 자재생산(세멘트, 합판, 콘크리트 제품) 공장,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부문(비료공장, 농기구) 공장 더 나아가서는 조선, 전기 제품 등

생산공장 등의 합작 투자도 가능하지 않은가 볼
 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연구여하에 따라
 기술(Engineering Consultant)과 기업의 후원을
 갈구하는 이 지역에 기술의 정착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단순한 기술용역회사(또는
 개인 기술자)의 정착은 항상 용이한것만은 아님
 을 경험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 예도 있
 나 생략함) 이에 국가나 또는 어떠한 조직체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정착은 그 자체의 큰 소득이 있는것이

아니고 기업의 유발역할을 할수 있음으로 영리
 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해외 협력회사
 또는 불탄서의 ASTEF(실업인 협회) 같은 반관
 반민의 조직체가 있어 이들, 해외에서 활약하고
 저 하는 기술자나 기업을 돕는 통합 기관의
 설치를 제의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참고문헌 : Mekong 위원회보고서

건설지 2권 1호 및 2호의 전파
 속에 건설되는 베트남(김동휘)

技 術 相 談 室

案 內

韓國技術士會는

農業, 水業, 林業, 電氣, 機械, 化工, 纖維, 金屬, 鑛業, 船舶, 船空, 建設, 應用理學의 13個
 部門 245名(1回~7回)의 技術士로 構成, 技術士法에 依據하여 設立된 政府의 認可團體입니다.
 技術士란?

國家考試에 合格하여 認定을 받은 科學技術界의 專門의인 知識과 應用能力을 가진 醫師이며
 農業技術에서부터 工場管理에 이르는 相談·指導等에 關與하고 있습니다.

本誌는 讀者 諸位와 좀 더 가까운 것이 되고자 하여 여러분의「技術相談室」을 마련하였습니다.
 讀者께서 平素 技術의인 點에 對해 簡單히 問議하실 것이 있으시면, 本 相談室을 利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到着된 相談文은 內容에 따라 專門分野의 技術士에게 依頼하여 誠意있는 答을 드리겠습니다.

◇ 相談要領 ◇

問 議 書 : 200字 原稿紙 3枚 程度

相談方法 : 問議書의 解答은 本人에게 郵送通知하고, 本誌에 掲載 可能的 것은 次刊號에 掲載함.

相 談 料 : 無料

보내실곳 : 서울特別市 中區 明洞 2街 5-5 電話(22) 8265

韓國技術士會 事務局